

# 올 지역개발 사업 1조4000억원대 전망

## 화훼관광단지·부른산단 착공 중앙근린공원 조성 최대 규모 단계전 복원 국비 확보 결정

올해 착공 등 본격 추진되는 원주 지역 개발 사업들의 규모가 총 1조 4000억원 대에 달할 전망이다.

원주시에 따르면 지역에 추진중인 대형 현안사업 20여개 중 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, 중앙근린공원 민간공원

조성, 남원주역세권 개발, 부른일반산업단지 조성, 단계전 생태하천 복원, 원주천담 건설 등 최소 6개의 사업이 올해 착공하는 등 본격화된다.

이중 가장 큰 규모는 '중앙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 사업'으로 총 5710억원이 투입된다. 시행사가 420억원의 예치금을 시에 납부함에 따라 토지보상과 함께 실시계획인가 등의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이르면 올 상반기 중 착공에 들어간다.

1700억원이 투입되는 '원주화훼특화

관광단지 조성 사업'은 지난해 관광단지 지정 고시로 토지보상과 함께 실시설계 및 조성 계획 수립을 거쳐 오는 하반기 착공된다.

'남원주역세권 개발 사업'은 총 2844억원 규모로 예비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 면제 등 행정 절차 간소화에 이어 투자선도지구 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3월 보상작업에 이어 10월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. 2594억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'부른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'은 현재 1단계 사업 토

지 보상을 완료하고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성 중이며 최근 부른IC신설 결정 등 호재로 연내 추진이 본격화된다.

450억원이 투입되는 '단계전 생태하천 복원 사업'은 국비 확보가 결정됨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늦어도 오는 하반기 공사에 착수하며 486억원 규모의 '원주천담 건설 사업'도 오는 3월부터 보상금 지급에 나서는 등 연내 본격화될 전망이다.

정태욱 tae92@kado.net

## 오인철 강원건설단체협의회회장



새해는 건설산업이 한층 더 성숙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.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건설경기 전망이 SOC예산 축소 및 민간

투자 위축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. 특히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성 사업과 원주-강릉 복선전철, 동홍천-양양고속도로 등 대부분의 대규모 사

## “불합리한 과잉 규제 완화

### 악재 속 강원건설 발전 노력”

업이 완료, 강원건설이 어려운 시기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.

하지만 어려울 때 일수록 서로의 지혜를 모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. 이를 위해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낙찰율 상향, 일반화된 공사에 무분별한 특허 또는 신기술 적용의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. 불합리한 중복 및 과잉규제의 개선과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한층 더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.

또한 건설산업을 통해 강원 경제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. 성숙된 문화 의식을 통해 도민에게 사랑받는 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.